

두메 꽃...

가끔, 혜화동에 있는 신학교에 갈때가 있다.

처음 최민순 신부님의 두메 꽃을 발견(?)하고 그 시비 앞에서, 그 두메 꽃 앞에서 난,...

한참을 서서 두근거리고, 팔딱거리는....그리고, 내 심장 안에서, 내면의 깊은 곳에서,

예수님의 소리를 듣는 듯 했다.



눈물이 났다.

아...이런 신앙을 해야하는구나, 하느님께 감사했고, 최민순 신부님이 우리나라 사제라는 것이 감사했다.

언젠가...남편이 결혼 하기전에 같이 성당에 가서 세례받고 결혼하자고 했다.

세례를 받으면, 복이 하늘에서 터져 나올 줄 알았고, 하는 일마다 잘되고, 복 된 삶만 살줄 알았다.

하느님은...어김없이(?), 우리부부가 세례를 받길 기다리셨다는 듯, 고통을 선물처럼, 20대 후반의 젊은 우리부부에게 안겨주셨다.

젊고,두려울게 없었던 우리는,... 고통앞에 무너져 가고, 우리부부는 둘 다, 두려움 가득한 큰 눈을 뜬 채,

하느님께서 내려주시는 별 같은 고통을 방어할 겨를도 없이 묵묵히 받아야했다.

어느 날, 세례때 모신 십자가를 바라보며, 성경쓰기와 묵상과 기도를 하고 있었다.

성경구절과 묵상이 전혀 다른데, 내면의 깊은 곳에서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

난 믿고 싶다. 그리고, 아직도 믿고 있다. 그때 그 음성이 예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내 가슴속 깊은 곳에서 말씀하셨다.

“나만 믿고 따라 오너라”

그때, 그 음성은 내 맘속 깊은 슬픔과 고통과 어두움을 한번에 몰아내시고, 밝음으로 가득 채워 주셨으며,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2001년6월16일 큰아들 요한이의 돌을 맞아 반장직을 맡겠노라 허락하고야 말았다.

하느님께서, 또 한번의 고통 같지도 않을 것 같은 고통의 일감을 내게 내미신 것이다.

갓 돌 지난 아들을 업고, 32살의 젊은엄마, 신사동본당에서 제일 젊은 반장이 되어 반장직을 시작했다.

아직,견지도 못하는 아들을 포대기에 업고, 유모차를 끌고 밀며, 본당 성전건립을 위해, 물품을 팔고, 반모임을 하고, 반원분들을 찾아 뵙고, 반장,구역장 월례회의,구역반장 피정, 불광동성당에서 매월 열리는 구,반장 월례연수를 한번도 빠지지 않고 다녔다.

그렇게 열심히 하다보니, 여성총구역장님께서 여성총구역 총무를 맡아 달라고 하셨는데, 솔직히, 내 자신이 여성총구역 총무를 맡을 정도의 신앙심은 아니라고 손을 내저었다. 그렇게 시작한 반장직이 길음동성당에서도 이어져 올해로 10년을 넘어 12년째가 되어 경력만 10년이 넘는 “반장님”이 되었다.

정말, 때로는... 솔직히,...반장을 그만두고 싶을때가 많았다.

하느님께 죄송하고, 반원분들께 부끄럽지만,정말...얼마전까지도 그만 두고 싶었다.

반모임,구역반장 월례회의, 월례연수, 판공성사표와 달력 나눠주기,가정방문,병문안,구역청소, 구역전례...

나도 바쁜데,...나도 직장생활 하느라 무척 바쁘고, 몸도 여기저기 아프다고 외치는데, 정말 힘들고,상처를 받을때는 그만두고 싶었다.

어느날, 반모임때 반원분들이 한분도 오지않아,예수님께 죄송함의 기도를 드릴 때, 큰아들 요한이

내 눈앞을 아장아장 걸어가는 것을 보고, 아들과 단둘이 아니, 예수님과 셋이서 반모임을 했다.

특히, 판공성사표와 새해 본당 달력을 나눠주러 갈때는 달력이 무거워서 어깨, 팔도 아프고, 반원분들이 집에 계시지 않거나, 반원분들중에는 문을 열어주지 않아, 하얀 눈발에 서서 발이 언채로 아파트 입구에서 “자동문아 열려라~”하고 미친 듯 혼잣말을 할때도 많았다.

반모임 공지 및 여성총구역의 공지사항을 전달할 때, 많은 반원분들에게 문자를 보낼때는 답장을 보내는 신자분 한분 없어도, 하느님 소식을 전하는 마음으로 휴대폰 요금 아까운줄 모른 채, 수십건을 한달에 몇 번씩 보낼 때도 많았다.

어느날 하느님께 통통거렸다.

“예수님!!! 저 고통스러워서 반장 못해먹겠어요! 그만둘래요!가시밭길 같아서 마음도 아파요!!!” 이번에 들려온 하느님은 대답이 다르셨다.

“엘리사벳. 너가 걷고 있는 가시밭길이 바로 꽃길이니라~~~!!!“

사실, 나도 품위있고, 우아하고,눈에 쏘옥 띄는, 내세울만한 본당 봉사, 신자들이 혁~하고, 와~하며 부러워하는 봉사를 하고 싶다. 예전에 나도 본당성가대, 연합성가대, 소년 레지오 부단장, 제대봉사, 자모회...많이 했었다.

그런데, 왜!!! 내가 이 힘들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아니, 반원도 모르는 애매한(?) 반장직을 맡아서, 이 고생을 하고있나...그리고 하느님께 통통 거렸는데, 내가 가시밭길이라고 느끼는 이 길이 꽃길이라니...헐~~^^

사실,난 반장직을 맡고,하느님께서 주신 은총을 넘치도록 받았다.

내놓아라 하는 우리 젊은 부부의 직장을 거둬 가실 정도로 큰 고통이었던, 갓 태어난 아픈 아들을 품에 꼬옥 안고, 집도 제대로 못챙기고, 집도 버리다시피하여,... 이 세상에서 버림받은 꼴찌가 된 슬프고도, 두려운 가슴으로, 급히 비행기를 타고 여의도성모병원으로 향했다.

오랜 투병 끝에 아들을 살려 주셨고, 서울에 온지 1년 만에,그리고 반장직의 부르심을 받은 한달 여만에 하느님께서 신학대학교에 남편을 위한,

우리가정과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한, 그런 자리를 만들어 놓으셨다.

그리고, 신학교 밥을 먹은지 4년이 흘러 작은 아들 대건이가 태어났다.

그래서인지, 사실, 반장직을 내놓기가 아깝다!!!^^

반장직을 맡아서인지, 꿈도 특별한 꿈만 꾀다.

103위 성인께서 아름다운 한복을 입고,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을 기준으로 금빛이 쏟아지는 하늘로 오르는 꿈, 마더 데레사 성녀께서 나를 꼬옥 품에 안아주시는 꿈, 김수환 추기경님을 뵈는 꿈, 예수님께서 나에게 귀한 것을 주시는 꿈, 성모님을 뵈는 꿈...참 많은 성스러운 꿈을 꿔다.

자매님들!!! 저처럼, 이런 귀하고 성스러운 꿈을 꾸시고 싶으신가요?

하느님 은총을 받고 싶으신가요?

그러면, 반장을 하십시오!!!

가장 우습게 보이고, 불품없고, 알아봐 주지 않고, 내가 누구인지 몰라주는, 그런 이유로 힘없어 보이지만,그러한 이유로 꼴찌 같아 보이지만!!!

하느님께서 최고로 인정해주시는 반장,구역장직을 맡아 봉사해보십시오!!!

신앙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눈에는 꼴찌 같은 봉사가, 하느님 눈에는 천국의 첫째라는 것을...

내가 꼴찌라고 느낄 때, 그 순간이 바로 첫째입니다.

가장 낮은 봉사가 진정한 권위, 진정한 봉사입니다.

최민순 신부님의 두메꽃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햇님만 내 님만 보신다면야

평생 이대로

숨어 숨어서 피고 싶어라...

최민순 신부님의 두메 꽃을 길음동성당 구역장님들과,반장님들께 바칩니다.

길음동성당 18구역 3반장 김민정 엘리사벳 올림.